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CHILDREN OF BLOOD AND BONE

가제 : 뼈와 피가 있는 아이들

저자 : Tomi Adeyemi

출판사: Henry Holt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 영화사 **Fox 2000**과 백만 달러 규모에 가까운 파격적인 금액으로 영화 계약 체결

* 스물세 살, 젊은 신에 작가가 흑인 인권운동과 서아프리카 문화, 신화를 절묘하게 조합하여 완성한 판타지 어드벤처 **3부작의 첫 번째 이야기**

광활한 오리샤 왕국에는 열 다섯 가지 마법을 가진 부족이 대대로 번성했다. 천상의 신이 내려준 마법으로 물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부족이 있는가 하면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부족, 마음을 읽거나 시간을 거스르는 부족도 있었다. 땅과 금속을 다스리는 부족,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부족과 오리샤 내에서는 어디든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마법을 가진 부족들이 더불어 살아갔다. 이 신비한 마법은 대를 이어 전해졌는데, ‘매지’로 불리는 마법사와 평범한 오리샤 왕국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장차 부모의 마법을 물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생겨났다. 자라면서 피부색이 점점 진한 갈색으로 바뀌고 새하얀 백발이 유독 눈에 띄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마법사의 후계자가 될 아이였지만 어른이 되기 전에는 마법을 쓸 수 없었다. 오리샤는 매지가문의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법을 부리는 동안 내내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후계자의 숫자가 크게 줄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젤리가 결코 잊지 못하는 그 끔찍하고 잔혹한 밤의 사건도 서서히 번져간 비극적 사태의 결과였다.

겨우 여섯 살이던 젤리는 한밤중에 엄마가 왕국 군대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 울부짖는 아빠의 고함소리에도 덩치 큰 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의 목에 붉은 밧줄을 둘렀다. 언제나 정리 안 된 부스스한 엄마의 백발은 이들의 우악스러운 손아귀에 붙들리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젤리는 집 근처 큰 나무에 매달린 엄마를 보았다. 엄마의 몸에서 똑똑 떨어진 피가 바닥에 떨어져 고이는 것도, 모두 보았다. 그 날, 오리샤 왕국에 얼마 남지 않은 매지들이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세력들이 힘을 모아 마법을 송두리째 없애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렇게 오리샤에서는 마법이 모두

사라지고,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아이들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다. 젤리처럼 마법사의 아이로 태어나 검은 피부, 백발로 후계자의 자격이 주어진 아이들도 성인이 된다 한들 신비한 능력은 가질 수 없었다. 세상에 마법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로부터 11년의 세월이 지나고, 젤리와 몇몇 매지의 후손들은 크게 자랐지만 이들을 향한 오리샤 왕국의 핍박은 날로 거세져만 갔다. 마법을 모두 잃어버린 이 소수의 부족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했던 지난날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했다. 왕국의 부당한 억압에 대다수의 오리샤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제는 갈색 피부를 가진 모든 이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거기에 머리까지 백발이면 더욱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어릴 때부터 용맹하고 싸움꾼 기질이 들끓는 혈기왕성한 소녀로 자란 젤리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숨죽인 채 살아야만 했다. 매지의 후손들을 모아서 지팡이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무예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나 다른 아이들과 이 힘겨운 상황을 함께 견디고 있었지만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돈까지 착취해가는 왕국 사람들 때문에 젤리의 분노 역시 나날이 불타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마리 왕자와 친구가 되면서 젤리에게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어쩌면 오래 전 잃어버린 마법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왕권을 휘어잡은 형과 달리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아마리 왕자를 알게 된 직후 젤리는 한때 매지와 신을 이어준 소통의 끈을 되살리고 마법을 키우는 비밀이 담긴 문서를 손에 넣는다. 무분별한 왕국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젤리는 오빠 트자인과 함께 아마리 왕자의 도움을 받아 그 비밀의 열쇠를 풀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 이들의 계획을 알아차린 아마리 왕자의 형, 이난 왕자의 교활하고 잔인한 작전이 시작되고, 세 사람은 먼 옛날 묻혀버린 마법을 찾기 위해 힘을 모은다.

2012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17세 흑인 청소년이 아무 이유 없이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흑인을 향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미국에서는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는 슬로건을 내건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됐다. 스물세 살의 나이지리아 출신 신예작가는 이 운동에서 영감을 얻어 이번 소설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서아프리카의 독특한 문화와 신화가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는 스릴 넘치는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토미 아데예미(Tomi Adeyemi)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미국 작가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서아프리카 신화와 문화를 공부했다. 현재 샌디에이고에 살면서 글쓰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FAT GIRL ON A PLANE

가제 : 뚱뚱한 여자 비행기 타기

저자 : Kelly Devos

출판사: Harlequin Teen

발행일: 2017년 11월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뚱뚱한 몸매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린 주인공의 사생결단 새 인생 만들기 작전**

*** 남들의 시선 때문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유쾌한 이야기**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고 분야마다 그 일을 해내는 데 꼭 필요한 자격 혹은 기술이 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기준 외에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이라는 엄격한 또 하나의 기준이 존재한다. 피부과 의사는 피부가 좋아야 한다거나, 결혼 전문 상담사는 결혼생활이 아주 멀쩡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식의 기준이다. 패션디자이너는 옷을 잘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편견 또한 마찬가지다. 남성 디자이너에게는 다소 너그럽게 적용되는 이 기준은 유독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 뚱뚱한 여자는 패션디자이너가 될 자격이 없을까? 다섯 살 때 할머니가 보여준 어느 디자이너의 자서전을 보고 평생의 꿈을 정한 재능 있는 소녀, 쿠키도 이 편견 가득한 기준의 희생양이 되었다. 문제는 그 차별이 패션과 관련이 있지도 않은 엉뚱한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날개를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꿈을 펼치려 떠난 공항에서부터 쿠키의 시련은 시작됐다.

하필 엄마가 유명한 패션디자이너라 깡마른 몸매에 멋들어진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데다 딸 이름을 간식인 양 '쿠키'로 지어버린 바람에 쿠키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패션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은 흔들림 없이 열일곱, 고등학생 졸업반이 될 때까지 쿠키의 마음 깊이 자리 잡았지만 150 킬로그램에 육박하는 체중이 문제였다. 재능은 대형 패션 블로그에서 활약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인정을 받았고, 롤모델이 처음 패션을 공부했다는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창의력으로 덩치 큰 사람들을 위한 독보적인 패션 브랜드를 만들 자신이 있었다. 그 대망의 입학 면접을 앞둔 쿠키는 떨리는 마음으로 포트폴리오와 지원서를 들고 뉴욕으로 떠난다. 블로그 대표로 유명 디자이너와 인터뷰를 하고, 그에게 추천서를 받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쿠키의 계획이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갈아탈 비행기를 기다리기 전까지만 해도 거구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던 불안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잘 해보자는 결심이 굳어졌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탑승을 관리하는 승무원이 좌석을 두 개 구입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오헤어 공항까지 아무 문제없이 왔는데 이제 와서 600불이 넘는 돈을 내고 좌석을 하나 더 구입하라니, 쿠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지만 나이 지긋한 항공사 직원은 다른 방법은 없다며 단호

하게 좌석 구입을 요구하는 바람에 쿠키는 타야 할 비행기를 코 앞에서 보내야 했다. 심지어 다음 비행기가 만석이라 누가 취소하지 않는 한 못 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암담한 통보까지 이어졌다. 이런 모욕과 수치심도 견디기 힘든데, 여윌돈도 없었던 쿠키는 결국 가장 친한 친구인 토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지만 그 이상이 되기를 쿠키가 내심 바라고 있는 토미는 고맙게도 무슨 일인지 따져 묻지도 않고 카드 번호를 불러줬다. 마침 다음 비행기에 좌석도 생겨서 쿠키는 어떻게 꼬이든 파슨스에 들어만 가자는 심정으로 분노를 누르고 또 누르며 겨우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이 일은 서막에 불과했을 뿐, 더 큰 고난이 쿠키를 기다리고 있었다. 뉴욕에 도착한 직후, 쿠키는 공들여 일해온 블로그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공항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그 새 소유주의 딸이 이미 뉴욕에 도착해서 블로그 대표로 이미 디자이너와 미팅을 끝냈다는 비보도 날아들었다. 아무 소득 없이 큰 봉변만 당하고 집에 돌아온 쿠키는 자신과 달리 강마르고 집에 돈도 많은 그 문제의 사장 딸이 오랫동안 짝사랑만 해온 토미와 데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접한다. 연이은 충격에 무너져버린 쿠키는 두 번 다시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으리라 바둑바둑 이를 갈고 살을 빼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2년 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어온 쿠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외모도 눈에 띄게 달라진데다 당대 최고 인기 디자이너인 가레스 밀러에게 재능을 인정 받게 된 쿠키에게 화려한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 밀러의 도움을 받아 2년 전 포기해야 했던 디자인 공부도 뉴욕에서 새로 시작하고, 늘 꿈꾸던 일들이 착착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날이 마침내 쿠키에게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 중대한 순간, 쿠키의 마음은 어딘가 편치 않다. 150 킬로그램의 불품없는 모습이었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사람들이 달라진 자신을 좋아해주고 칭찬하는데 이런 호의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 그런 고민 따위 집어 던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현명한 걸까? 어떤 모습이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던 사람들과 소박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은 아닐까? 2년 전과 후, 뚱뚱한 쿠키와 날씬한 쿠키의 시각을 번갈아 따라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쿠키가 왜 이런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쿠키의 성장기를 담은 유쾌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켈리 디보스(Kelly Devos)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The Writer Diaries」, 「YAgabonds」, 「Normal Noise」, 「202 Magazine」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